

[서평]

##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 (한준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1)

최 윤 진\*

왜 청소년들은 비행, 일탈 행위들을 저지르게 되는가? 이점에 관해 기존의 이론과 연구물들은 여러 각도에서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결손, 자녀 양육 방식 등과 같은 가정의 문제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급격한 사회변동과 향락을 퇴폐문화의 만연, 매스컴의 영향등과 같은 사회적 계요인을 청소년 문제의 중요변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준상교수는 청소년 문제와 비행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시각에 대해 학문적 의구심을 갖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의 주제, 대상, 방법에 대한 일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을 통해 역설하고 있다. 즉 문제청소년의 문제를 문제가정, 문제사회, 혹은 개인적인 문제에만 일차적으로 귀인시키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이론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다. 그동안의 청소년 관련 연구들이 너무 위의 변인들에만 치우쳐 왔던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 문제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문제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교교육 현장이 청소년 비행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를 학교교육과 연계시켜 탐구하고자 하는 한준상 교수의 깊이있는 관심은 교육사회학을 독립 학문분야로 키우고자 하는 교육학도로서 저자의 강한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교육 현상 속의 사회적, 사회학적 기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점진, 이해 확산 독립시키려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밝히며, “본 연구는 일탈, 비행 현상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이나 관점을 교육 현장에 막바로 적용, 응용시키려는 단순한 작업을 폐기하고 단지 교육 사회학의 안목과 관점, 이해방식으로 교육 현장 속에서 발견되는 한국 학생의 비행, 일탈 문제를 이해하고자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p. vi).

따라서 이책은 청소년의 비행, 일탈 문제를 교육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특히 학교교육 문제

\*한국청소년연구원 책임연구원

와의 관련성을 깊이 파악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총 5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의 “청소년과 사회문제” 부분에서는 사회문제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현상 진단등 서론적 성격을 띤 기초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사회학적 이론”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비행, 일탈에 관한 기존의 구조기능론, 갈등론, 민속방법론과 구조주의의 제이론들을 심도있게 소개하며, 이러한 여러 이론들의 짜맞춤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이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에 일정한 형식으로 연관 관계를 맺고 있고 따라서 학교 교육은 청소년 문제에 관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이론적으로 유추시키고 있다.

제3부의 “청소년 비행, 일탈에 대한 사회적 원인론”에 관한 부분에서는 매스컴, 종교, 그리고 가정적인 변인들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경험적 광범위한 연구물들의 소개와 분석이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그동안 청소년 비행, 일탈 문제에 주요 결정 인자로 보아왔던 결손가정의 문제, 매스컴의 영향, 종교적인 영향이 청소년 문제에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을지 몰라도 일방적인 인과관계는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청소년 문제 원인과 가정교육변인, 매스컴변인, 종교활동변인등의 관계에 관한 결정론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이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청소년 일탈과 학교교육”문제를 다루고 있다. 외국의 제이론 검토를 통해 학교교육이 청소년

비행 문제에 직접, 간접으로 간여되고 있음을 밝히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교교육의 역기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회 이념으로서 공교육이 갖고있는 공교육 현장의 문제, 학교제도와 학생문제, 교사들의 수업 상황과 교실운영 전략등 전반에 걸쳐서 청소년의 건전 성장을 막고있는 학교 교육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가 학생들을 사회화 시키기 위해 각종 규칙,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 학교 교육의 잠재적 사회화 과정은 학생에 관한 차별적 유형화와 낙인과정을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학교의 제반 규칙과 선도규정의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학교교육 개혁과 청소년 문제”에 관해 다룬 제5부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교육적 및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학교교육 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거부하며 “학교교육 기관이 민주주의 원리와 민주주의 이상을 헤치고 있는한 학교교육기관은 개혁되어야만 한다”(p. 424)며 “자유 의 실현과정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거나 방해하는 수단으로서 학교가 이용당하고 있다면 학교교육은 혁파되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위의 개략적인 내용의 소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책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방대한 이론과 연구결과들의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이슈들을 저자의 예리한 시각으로 깊이있게 다룬 훌륭한 역저임을 느낄 수 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관련하여 그동안 한국의 연구들이 주로 아동의 인성이나 가정문제, 사회적 요인들에 많은 관심을 두었던 반면 상

대적으로 학교 교육 문제에 대한 고려가 미약했음을 인식할 때, 청소년 비행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현장의 문제들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학교교육 각 분야별 문제들을 치밀하게 파헤친 저자의 부단한 노력을 대할 때, 「청소년문제와 학교교육」은 앞으로의 청소년 연구에 새로운 접근을 위한 귀한 길잡이가 될만한 책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학교교육의 변인을 강조하고자하는 의도에서 간혹 가정변인을 비롯한 그밖의 변인들의 영향이 축소 해석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몇몇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운 감을 준다.

저자는 결손가정이 청소년 문제, 학생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정인자임을 거부하고 있다(제3부 참조).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결손가정이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정인자라는 논의와 결손가정이 청소년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논의는 구별되어야 하며, 후자의 논의들까지 전자에 포함시켜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저자는 가정교육 변인을 비롯한 학교교육 이외의 변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청소년 문제와의 관련성을 보여줄 지 모르나 인과관계는 보여주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제3부 참조).

그러나 학교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제4부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학교교육 변인 역시 청소년 문제의 결정인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하기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다만 학교교육 변인도 다른 변인들 못지않게 청소년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책을 통해, 저자도 강조했듯이 그동안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등한시 되어왔던 학교교육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중요한 연구주제로서 인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너무 확대 해석하여 기존의 시각을 폐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저자는 청소년기를 지불유예기적 특성을 갖는 시기로 보며 이 시기의 특성은 갈등, 차이, 개체성 보장의 시기이기 때문에 갈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청소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청소년기의 지불유예기적 성격에 대한 인정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조작의 사회라고 판단될 수 있다. 즉 청소년은 사회의 목적을 위해 기술적으로 조장당하기만 하는 사회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조작의 사회에서는 갈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차이의 개별성에 대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차이나 개체성 발휘라는 말은 불량하다는 의미를 시사하게 될 뿐이다. 갈등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의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해될 뿐이다(p. 410).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불유예기적 시기를 통해 자기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 사회, 학교는 최선을 다하였는가? 특히 학교는 그 제도나 내용, 교육과정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불유예기를 의도적으로 소멸시키고 청소년들을 비행의, 또는 일탈의 거리로 내몰지는 않았는가?

이책은 이러한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심각하게 던져주고 있으며 우리의 청소년들을 보다 깊은 애정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봐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